

소련의 石油事情

— 대한석유협회 조사과 —

◆ 開發技術미흡으로 生産不振

소련의 石油生産量은 84, 85年 연속으로 전년보다 하회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석유는 비교적 순조롭게 增産되었으나 70년대말경부터 신장률이 점차 둔화되어왔다. 그리고 최근의 生産침체현상을 보면서 西歐國家들은 소련의 석유생산이 드디어 한계에 달하고 있다는 견해를 재인식하는 듯했다.

현재 세계 제1의 생산량과 제3위의 확인매장량을 과시하던 소련이 이처럼 生産低調에 빠진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그 첫째로는 이 나라의 석유개발기술이 落後되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아주 강한 回轉力에 견디어 낼 수 있는 드릴·파이프를 제조하는 기술이 없는 소련에서는 油田굴착에 터보·드릴을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파이프 속의 머드(泥)가 전하는 힘에 의해 첨단 비트(bit)를 회전시키는 방식의 드릴(drill)로서는 굴착작업에 오랜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파이프·라인도 耐寒性이 粗惡하므로 시베리아 極寒地域에서의 石油輸送을 정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減産경향을 빚은 또하나의 원인은「水功法」의 亂用이다. 소련에서는 原油생산과정에서 油層内部에 물을 注入해 증산하려는 水功法를 석유생산 초기단계부터 채택해왔다. 이 방법은 生産초기단계에서의 증산에는 효과적이지만 油田수명을 단축시키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産油能力을 저하시키게 된다.

소련은 1960년대 전반에 「사모트롤」등 大油田이 발견된 이후 그러한 大油田이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60년대의 石油增産을 이끌어 온 볼가·우랄지역의 油田은 이미 노후화하는 상태이고, 西시베리아지역에서도 産油地는 北極海 근처에 散在해있다. 따라서 문제는 총매장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규모적인 油田들이 시베리아 여기저기에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다.

◆ 資材·技術導入은 石油수출에 의존

西歐諸國에 대한 소련의 석유수출은 外貨收入源이라는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産業設備 및 技術面에서 유럽에 비해 뒤떨어진 소련에서는, 첨단기술은 물론이거니와 素材産業用 플랜트를 비롯해 에너지개발이나 家電製品제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産業자재/기술의 도입은 西歐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도입·구입하기 위한 西歐國通貨의 60%정도를 石油수출收入으로 충당해왔다.

그런데 근년의 石油生産량 감소는 그대로 石油수출량의 감소로 나타났다. 또한, 黑海터미널에 이르는 파이프·라인 가동률의 저하도 그 원인의 하나였다. 뿐만 아니라 공급과잉의 國際石油市場에 있어서는 中東産原油에 비해 高價格인 소련 原油 판매량이 저조할 수밖에 없어서 85년도의 對유럽 石油수출량이 전년보다 17%나 줄어들었다. 때문에 소련의 對西方 무역수지는 21억7,000만달러의 흑

(表 - 1) 소련의 처유립 石油輸出收入

(단위 : 10억달러)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石油輸出額	14.4	14.3	16.7	17.6	16.7	12.7
輸出總額에 대한 비율	59.0	59.6	64.2	66.6	63.6	57.0
總輸出額	24.4	24.0	26.0	26.4	26.2	22.3

자에서 8억3,000만달러의 적자로 바뀌었다.

소련으로서는 이러한 外貨取支惡化를 맞아 天然가스의 수출량을 확대함으로써 대처하려 한다. 그러나 天然가스는 수송·저장면에서 그 시장이 한정적이어서 그로 인한 外貨收入의 증가에도 한계가 있다. 결국 소련이 서구제국으로부터의 外貨획득을 위해서는 石油輸出에 의존하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西歐側 金融通貨體制로의 접근

소련은 86년부터 새로운 제12차 5개년계획에 바탕을 둔 경제정책을 개시했는데, 경제전체의 발전을 지탱하기 위한 에너지部門의 개선이 추진되어 石油開發에 대한 투자가 86년에 前年比 40%나 증가되었다.

다른 나라들이 原油價格폭락에 타격을 받아 開發部門 支出을 삭감하고 있으나, 소련에서는 86년초부터 油田굴착용 리그(Rig)를 활발히 가동하였다. 현재 세계에서 가동중인 리그의 半이상은 소련油田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련의 石油생산량은 다시 증가경향을 보이게 되어 86년도 총생산량은 前年比 약 3%증가한 6억1,0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특히 현재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西시베리아지역에서 投資效果가 나타나고 있는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생산량이 회복됨과 아울러 86년 초의 따뜻한 겨울기후로 인해 국내소비가 감소한 때문에 西方側으로의 石油수출량이 서서히 증가세로 돌아서기 시작하였다.

한편 국제시장에 있어서 85년말부터의 原油價格 연속 하락현상은 소련의 石油輸出收入에 큰 타격을 주었다. 86년 초 배럴당 18달러이었던 「우랄原油」의 수출가격은 8월에 10달러선으로 떨어졌다. 그 후의 가격은 약간 회복세이기도 하였으나, 西方側으로의 86년 石油收入은 그 수출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前年比 40% 정도나 줄어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소련은 86년 8월경부터 GATT(關稅貿易一般協定)의 新라운드(多角的貿易交涉)에 참가신청을 함으로써 西方側의 금융·통화체제를 향한 접근활동이 주목된다. 이 움직임은 石油收入 감소로 말미암아 새로운 국제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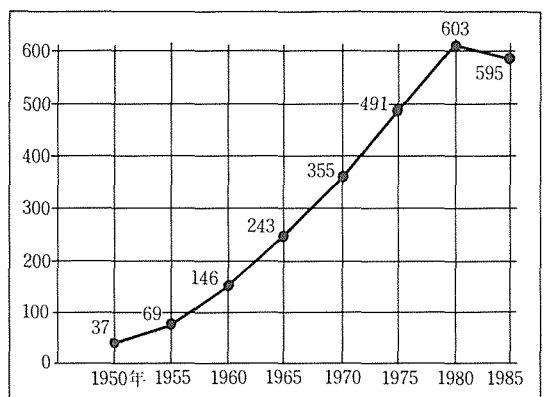
◆産油量은 다시 감소할까?

86년의 石油생산량은 회복세이었으나, 앞으로의 산유량에 대해서는 소련의 현재 생산수준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은 적다고 분석된다. 현재의 증산상태는 투자를 대폭 증액하였음에 따른 일시적현상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産油動向은 西시베리아 油田개발의 성과 여부에 달려있는데, 이 지역에서도 「사오트롤」을 비롯한 대부분의 大規模油田은 이미 생산량이 피크에 달한 형편이어서 투자에 비례할 만큼 계속 증산되리라고는 예상되지 않는다. 더우기 그 投資自體가 계획대로 시행된다는 가능성도 적은 편이다. 왜냐하면 經濟近代化를 서둘고 있는 나라인 만큼, 개발이 급한 것이 에너지部門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상의 여러면을 종합할 때, 소련의 산유량은 앞으로 下降線을 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들의 5개년계획에

(表 - 2) 소련의 原油生産量

(단위 : 100만톤)



(資料) BP統計

의하면 1990년의 생산목표가 6억4,000만톤으로 크게 확대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6억톤을 또다시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西方側으로의 石油輸出量은 적어도 향후 몇년 간은—天然가스의 燃料代替에 따른 국내석유소비절약과 東歐圈으로의 수출량감축등으로 인해—현재의 수출량 수준을 유지해 갈 것으로 생각된다.

첨단기술을 적극도입하는등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하려는 「고르바초프」 政勳이므로 소련의 貿易構造를 감안할 때 石油수출에 따라 좌우되는 外貨收入의 감소를 어느정도 막아낼수 있는가가 소련 政府의 중요문제이다. 石油生産의 감소를 저지하기 위한 開發資材 및 기술의 도입이라는 한가지 면만을 보더라도 對西方 石油수출에의한 外貨收入 확보가 절실히되고 있는 실정이다. (◻ <旬刊石油政策 2.25日字>)

□ 해외석유산업단신 □

체질개선하는 美國 石油會社들

美國 石油會社들의 체질이 최근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石油探查費는 크게 삭감되고 기초연구보다도 收益에 직접 이어지는 응용연구에 치중되고 있으며 사원은 필요최저 한도로 감축되는가 하면, 이익이 신통치 않은 부문은 축소되고 있다.

石油會社의 체질변화는 石油가격이 폭락되기 시작한 작년초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 회사에 따라 극단으로 치닫거나, 또는 소문만 요란하고 실제로는 실행되지 않는 등 일관성이 없었다. 그러나 금년에 들어서는 대부분의 石油會社가 체질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美國 石油會社들의 경영방침은 종전과 상당히 다른 것 같다. 종전의 方針에서는 石油會社의 변형은 결국 原油生産에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 따라서 먼 장래까지 생각해서 다액의 탐사비가 투자되어 왔으며 연구는 기초적인 것이라도 장래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면 착실히 추진되었다. 또한 사원은 다소 남아돌아가는 편이 여유 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실패를 미연에 방지하고 효율적이라는 인식을 가졌던 것이다.

油價폭락의 영향

石油會社의 체질변화에는 2가지 원인이 있다. 그것은 86년초부터의 油價폭락 및 기업의 합병·매수 바람이다. 86년초 油價가 폭락했을 때 많은 石油會社는 이러한 폭락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본질적인 것으로서 종전의 高價格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低價格은 향후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石油會社의 경영자들은 대부분 이런 의견을 갖고는 있었으나, 실제로는 油價폭락이 일시적 현상이기를 희망하

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에 대처하지 않고 사태를 당분간 관망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졌었다.

그러나 低價格이 1년이나 지속되고 향후 수년간은 대폭적인 油價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게 되자, 본질적으로 체질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게 되었던 것이다. 지속적인 低油價는 투자액이 크게 소요되는 극지 및 深海의 탐사·개발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경비가 많이 드는 3次回收은 축소시키는가 하면, 생산량이 적은 油井은 폐광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低油價 시기에는 힘들어 原油를 생산하는 것보다도 시장에서 얼마든지 값싼 原油를 구입해서 정제하는 편이 수익면에서 유리하다는 인식을 石油會社들은 갖게 된다. 그러나 이는 目前的 이익만을 추구하고 장래 原油生産의 안정화 노력을 등한시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買收·合併도 원인

美國 石油會社의 이러한 체질변화는, 油價하락 이외에도 기업들이 買收·合併의 위험에 항상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점도 큰 원인이 되고 있다. 買收·合併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油價가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石油會社들은 언제나 주식의 배당을 높게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처럼 低油價와 高額배당이라는 2가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됨으로써 石油會社의 경영자는 장기적인 변형보다도 단기적인 효율성에 치중하게 되어 會社의 체질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